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권 영 희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임 영 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녀 195명(여성 121명, 남성 74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상호성 믿음 척도,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척도,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하위 유형 중 부정정서 감소기대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하위 유형 중 부정평가 감소기대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부정정서 감소기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부정평가 감소기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유발 요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은 논의에서 다루었다.

주요어: 부정적 상호성 믿음,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IRB 승인번호: 1040621-202001-HR-049-02)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임영진,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53-850-6368, E-mail: ylim0109@naver.com

과거에는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공동주거 형태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floor noise)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벽과 천장, 바닥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임운구 외, 2013).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그 소음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층간소음에 피해를 받아도 크게 개의치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층간소음에 대해 소음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층간소음을 중지시킬 것을 당사자나 건물관리인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위채은, 2019)이라고 하며, 소음 유발자인 당사자나 건물관리인에게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런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라 한다(강민지, 2019).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는 자신이 층간소음에 대한 중지요구를 함으로써 소음 유발자가 자신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알고, 자신과 주변 사람을 얹잡아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은 부정적인 대우를 부정적인 대우로 화답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층간소음을 부정적인 대우라고 인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화답할 부정적인 대우를 탐색할 것이다. 이때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화답의 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가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한 가구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가구까지 전달되는 소음을 말하며,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불면·집중력 방해 등 층간소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이 발생하기도 한다(김혜리, 2017).

2012년 3월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전화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한 후, 2021년까지 총 252,916건의 전화 상담과 총 68,729건의 현장진단·소음측정 서비스가 진행되었다. 최근 3년 동안 서비스 건수는 2019년에 26,257건, 2020년에 12,250건, 2021년에 46,59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2021).

소음은 인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생리적 영향으로는 청력손실과 난청, 맥박과 혈압의 상승, 소화 운동의 억제 및 순환기 질환 등이 발생하며, 심리적 영향으로는 시끄러움, 거슬림 및 정서불안 등이 있고, 작업 방해, 수면방해, 휴식 방해 및 정신집중 방해 등의 생활 방해가 나타나고 있다(전진용, 2004).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

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편 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리적, 생리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박명길(2003)의 연구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에 피해받은 사람은 각기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반사회나 관리 사무실을 통해 이야기하는 간접적인 방법, 경찰에 신고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들 중에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방법 외에 그냥 포기하고 참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답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지만 소음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지 않고 참는 피해자, 반사회나 관리 사무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층간소음 중지를 요구하는 피해자, 소음 유발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등 직접적으로 층간소음 중지를 요구하는 피해자, 더 나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관련된 법을 통해 층간소음 중지요구를 하는 피해자까지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피해자는 바로 층간소음 유발자인 가해자에게 직접 소음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반사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전체에게 주의를 줄 수도 있다(강민지, 2019). 따라서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소음 유발자로부터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결과를

요구하며, 주목적은 소음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김범주(2012)의 연구에서 갈등은 둘 이상의 갈등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주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신념, 태도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이 보통 갈등이 생겼을 때 행하는 행동들은 간접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모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박영화, 2004). 따라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소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음 유발자에게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상호성에는 상대방의 호의뿐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에서도 비롯된다. 상대방의 무례를 모방하여 자신이 느낀 불쾌감을 되돌려줌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며, 불쾌감을 되돌려주는 행동도 상대방을 모방한 것이므로 이 행동 역시 상호성의 원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김진식, 2008). 상호성은 크게 정적 상호성(positive reciprocity)과 부정적 상호성(negative reciprocity)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상호성은 상대방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답, 보은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반면 부정적 상호성은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의 피해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수, 보복이라는 용어로 통용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고재홍,

1997).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Eisenberger, Lynch, Aselage와 Rohdieck(2004)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연구 결과에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으며, 인간은 악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소 분노를 자주 경험했으며,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대우를 하는 사람에 대해 더 큰 분노를 표출하며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긴장이나 걱정, 불안 등이 감소했으며,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칭찬이나 격려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Eisenberger 등(2004)은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상대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어야만 한다는 신념이라 정의했으며, 뚜렷한 부정적 상호성 믿음에 대한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대우의 반환에 관한 신념은 불리한 처우의 반환을 지지하는 하나의 표준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또 Barclay, Whiteside와 Aquino(2013)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적절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이를 도덕적 규범이라 생각하고, 이런 신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규범 위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 말한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복수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증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으로 인해 짜증이나 불쾌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증간소음이라는 부정적인 자극을 일으켜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로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할지에 대한 화답을 찾을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증간소음은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유발자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증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목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증간소음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는 다양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념들 중 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반드시 동일하게 갚아주어야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Eisenberger et al., 2004).

이런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받은 부정적인 대우를 똑같이 부정적인 대우로 화답하려는 특성을 지니는데 만약 이런 특성을 지닌 사람이 증간소음이라는 불쾌한 자극을 받았을 경우, 이것을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대우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우를 탐색할 것이다. 이때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화답의 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박명길,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이 부정적 화답의 방법으로 기능할 것이라 예상하며,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증

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를 말하고자 한다.

권혁남(2010)의 연구에서 분노는 자신이 당한 불쾌감에 대한 무엇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주려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오로지 반응적 태도의 틀 안에서만 분노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층간소음을 경험했을 때 동일하게 층간소음을 일으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서수균(2004)의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소음을 지각하고 어디서 발생했는가와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단계를 일차적 분노사고라고 보았으며, 이 일차적 분노사고 단계에서 층간소음 유발자가 층간소음을 의도적으로 일으켰고, 이기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불쾌감이 발생하면서 이차적 분노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로 인한 불쾌감에 대한 반응으로, 적응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 적응적이지 못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사고 단계이다. 이차적 분노사고에서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찾아가 소음을 중지시키거나,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서수균(2004)은 분노 정서와 공격 충격에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했으며 특히 다양한 반응들 중에서 공격행동과 분노, 분노 행동에 관심을 가졌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특징을 보였으므로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모색할 것이고, 행동에 옮기게

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Eisenberger et al., 2004)에 의하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니는 사람은 타인의 선행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인간은 악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이들의 행동을 ‘부정적인 대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음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자신도 부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는 Bandura(1986)의 사회인지론 개념으로 개인적인 기대를 의미하면서 자기가 하는 특정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에 이르도록 한다고 보는 것이고(박외자, 2010), Lent, Brown와 Hackett(1994)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기대이론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되어 그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여러 행동들 가운데 자신이 실행할 행동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기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서미숙, 2017).

결과기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란, 층간소음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결과기대라 할 수 있다. 강민지(2019)의 연구에서 중지요구 결과기대를 ‘층

간소음을 유발한 당사자나 건물관리인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런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라 정의하며,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를 네 개의 하위유형인 층간소음 감소기대, 부정정서 인식기대,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정평가 감소기대로 구분했다.

첫째, 층간소음 감소기대는 층간소음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소음 유발자가 실제로 층간소음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며, 이는 소음 유발자가 자신도 모르게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중지요구를 들었을 때, 소음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가정을 포함한다. 둘째, 부정정서 인식기대는 층간소음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소음 유발자가 자신이 경험한 고통과 불편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길 바라고, 고통에 대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에 발생한다 (Beyens, Yu, Han, Zhang, & Zhou, 2015). 셋째,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험한 고통스럽고 불편한 부정정서를 줄이기 위해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받은 피해가 부당한 것이고, 층간소음 유발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부정정서가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혹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참는 것으로는 자신의 부정정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함으로써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게 된다 (Hubbard, Morrow, Romano, & McAuliffe, 2010). 넷째,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자신이 층간소음을 당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중지요구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음 유발자가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을 만만하게 여겨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유발할 것이라 생각

한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며, 이런 중지요구행동을 한다면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한다. 이는 침해당한 자기상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기상이 침해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Stucke & Sporer, 2002).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위채은 (2019)의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한 상황을 Felstiner, Abel과 Sarat(1980)이 제시한 분쟁 발생 과정 모형에 대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분쟁 발생 과정에서 '인지되지 않는 침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자신이 겪고 있는 피해 증상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 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이 층간소음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명명하기(naming)'라 했다. 자신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소음 유발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귀책하기(blaming)'을 하고, 다음 단계인 불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불만 단계는 '요구하기(claiming)'을 발생시키고 소음 유발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받게 된 원인인 층간소음을 중단하거나 줄여달라고 요구하게 만들지만 소음 유발자가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런 분쟁 발생 과정에 층간소음에 대한 상황을 비교한 위채은 (2019)의 연구결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고재홍(1997)의 연구에서는 무갈등 상황보다 갈

등 상황에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더 나타났으며, 이런 신념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행한 부정적인 행동 그대로 자신도 동일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받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호의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반격, 보복할 가능성이 높으며(Parks, 1997),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도 비호의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보복 반응과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적 정서의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한다(May, Byrd, Brown, Beckman, & Sizemore, 2007). 그렇기 때문에 이는 분노 행동과 관련된 신념이라 볼 수 있고, 층간소음을 경험하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활성화된다(위채은, 2019).

피해자가 층간소음이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 생각했을 때, 이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행해지는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이라 하며, 이것은 특정한 보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격행동을 하는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는 대별되는 개념이다. 반응적 공격성은 자신에게 위협이나 공격적인 행위를 한 대상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좌절-공격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정의하고 있다(천주명, 2015). 이 모델에서 공격성은 위협이나 좌절 상황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한 분노 표출, 방어적 반응으로 그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물체를 대신 공격하게 한다(김영은, 2012). 이런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여러 선

행연구들은 반응적 공격을 하는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갖고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Card & Little, 2006; Hubbard, Morrow, Romano, & McAuliffe, 2010; Kempes, Matthys, De Vries, & Van Engeland, 2005; Vitaro & Brendgen, 2005). 자신이 반격하거나 복수를 하면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이 다시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자신이 반격을 함으로써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 또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또 자신이 복수하게 되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상대방이 자신을 깔보거나 만만하게 생각하여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Rotter(1966, 1971, 1990)이 제시한 기대-가치 모델(expectancy-value model)은 결과에 대한 기대와 그것과 연합된 보상가치의 함수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결정되며,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기대와 보상가치가 달라진다(권석만, 2017). 이것을 층간소음 상황에 대입하면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 아래층에 있는 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 중지요구 행동을 하면 소음 유발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기대가 높으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자신이 층간소음 중지요구 행동을 해도 소음 유발자가 소음을 줄이거나 중단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가 낮거나 없다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강민지(2019)의 연구결과,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하위 유형 중 층간소음 감소기대와 부정정서 인식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정서 감소기대와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하위 유형 모두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부정정서 감소기대와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높을수록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이유가 소음에 대해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층간소음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기대가 중지요구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소음이 줄어드는 것보다 자신이 받은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층간소음 유발자로부터 자신이 존중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층간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강민지,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하위 유형 중에서도 부정정서 감소기대와 부정평가 감소기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감소기대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은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경험하는 분노감정의 수준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높다(위채은, 2019; Eisenberger et al., 2004).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은 높아진 분노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며, 분노감정의 원인인 층간소음에 대한 중지요구를 하는 것이 분노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에 부정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정서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둘째,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층간소음에 대해 중지요구를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며, 정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정서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위채은, 2019).

다음은 본 연구에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서 부정평가 감소기대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첫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가해자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것이고(강민지, 2019),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만약 층간소음에 대해 계속 중지요구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해소하려 할 수도 있다.

둘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알보는 사람’이란(Eisenberger et al., 2004) 부정적인 타인상(他人像: other-image)을 지니고 있으므로 층간소음 중지요구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2.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3.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4.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

가설5.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대구·경북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5명의 자료를 제외한 여성 121명(62.1%), 남성 74(37.9%)명으로 총 19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대구 119명(61%), 경북76명(39%)이었다. 연령범위는 18세부터 60세까지였으며, 하루 평균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 또한 3시간부터 24시간까지 다양했다.

측정도구

부정적 상호성 믿음 척도(Negative Reciprocity Beliefs Scale). 층간소음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런 고통을 층간소음을 유발한 당사자에게 되돌려주어야만 한다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er 등(200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7점 Likert형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이 중 2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모든 문항의 총점을 부정적 상호성 믿음 점수로 사용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다.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척도(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 Scale). 김혜리(2017)의 연구에서 층간소음이 층간 발생한 상황에서의 책임귀인과 소음중지요구 수용예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인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귀인 및 소음중지요구 수용예상 척도를 강민지(2019)의 연구에서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층간소음의 유형과 관련된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은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정평가 감소기대, 층간소음 감소기대, 부정정서 인식기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Likert형 6점 척도로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를 선택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선행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

는 부정정서 감소기대 .88, 부정평가 회피기대 .93, 증간소음 감소기대 .82, 증간소음불편감 인식기대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부정정서 감소기에 .87, 부정평가 감소기대 .93, 증간소음 감소기대 .84, 부정정서 인식기대 .87이었다.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척도(Floor Noise Complaints Scale). 증간소음을 경험했을 때, 소음을 줄이거나 중단시키기 위해서 관리소나 반상회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증간소음 유발자에게 직접적으로 증간소음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채은(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이며, Likert 식 6점 척도로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를 선택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선행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절차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참여자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참여자들에게 참가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으며, 설문작성 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였다(승인번호 : 1040621-202001-HR-049-0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정평가 감소기대, 증간소음 감소기대, 부정정서 인식기대 및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시작하였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정평가 감소기대, 증간소음 감소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INDIRECT macro 매개모형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고, 매개 모형은 과거 증간소음 피해 경험 여부와 성별, 증간소음 감소기대, 부정정서 인식기대를 통제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평균 3.94, $SD = 1.19$, 증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하위 유형 중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평균 3.12, $SD = 1.13$,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평균 2.38, $SD = 1.14$, 증간소음 감소기대는 평균 4.10, $SD = .91$, 부정정서 인식기대는 평균 4.10, $SD = .94$, 이다. 그리고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평균 2.72, $SD = 1.10$, 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부정정서 감소기대, $r = .41, p < .01$, 부정평가 감소기대, $r = .49, p < .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총간소음 중지요구 행동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 = .39, p < .01$. 총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하위유형 중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부정평가 감소기대와만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r = .68, p < .01$, 부정정서 감소기대와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총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56, p < .01$; $r = .49, p < .01$.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가

설 1(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총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과 가설 2(부정정서 감소기대는 총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가설 3(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서 총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다중매개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과거 총간소음 피해 경험 여부, 성별, 부정정서 인식기대와 총간소음 감소기대를 통제한

표 1. 측정변인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195)

	M	SD
부정적 상호성 믿음(1~7점 척도)	3.94	1.19
부정정서 감소기대(1~6점 척도)	3.12	1.13
부정평가 감소기대(1~6점 척도)	2.38	1.14
총간소음 감소기대(1~6점 척도)	4.10	.91
부정정서 인식기대(1~6점 척도)	4.10	.94
총간소음 중지요구행동(1~6점 척도)	2.72	1.10

표 2. 부정적 상호성 믿음,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정평가 감소기대, 총간소음 감소기대, 부정정서 인식기대 및 총간소음 중지요구행동 간의 상관분석 (N=195)

	부정적 상호성 믿음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정평가 감소기대	총간소음 감소기대	부정정서 인식기대	총간소음 중지요구행동
부정적 상호성 믿음	-					
부정정서 감소기대	.41**	-				
부정평가 감소기대	.49**	.68**	-			
총간소음 감소기대	.01	.04	-.09	-		
부정정서 인식기대	.07	.01	-.01	.65**	-	
총간소음 중지요구행동	.39**	.56**	.49**	-.02	.04	-

** $p < .01$

뒤 분석한 결과, 부정정서 감소기대가 매개하는 간접효과, 추정치 = .07, 99% CI [.04, .1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 감소기대가 매개하는 간접효과, 추정치 = .03, 99% CI [-.01, .08],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 4(부정정서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5(부정평가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

표 3.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 대한 다중매개분석의 경로계수와 신뢰구간 (N=195)

IV	M	Effect of IV on M	Effect of M on DV	직접효과	간접효과	99% CI	전체효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	부정정서 감소기대	.14***	.53***	.07*	.07	.04~.12	.18***
	부정평가 감소기대	.17***	.20		.03	-.01~.08	

* $p < .05$, ** $p < .01$, *** $p < .001$

주. 모든 수치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과거 층간소음 피해 경험 여부, 성별, 부정정서 인식기대, 층간소음 감소기대를 통제한 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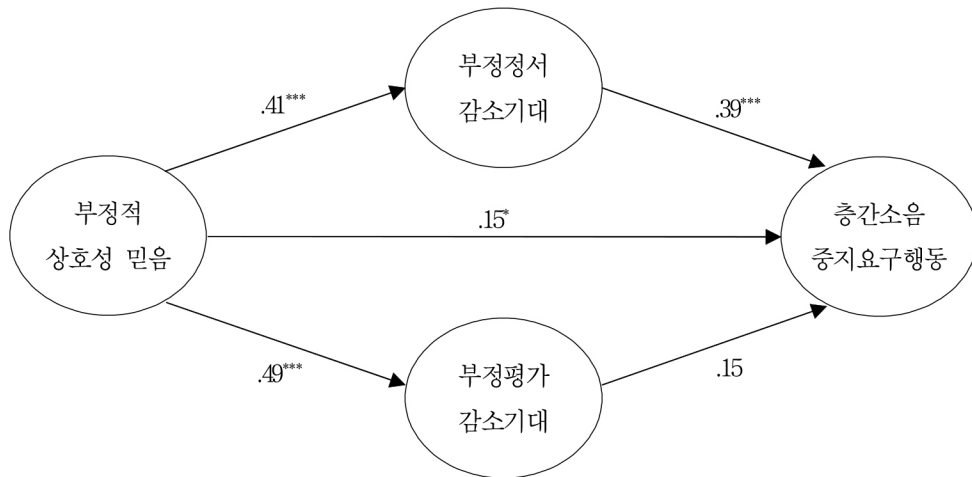


그림 2.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관계에서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매개모형: 표준화 계수

주.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과거 층간소음 피해 경험 여부, 성별, 부정정서 인식기대, 층간소음 감소기대를 통제한 뒤 분석

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증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경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19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 증간소음 중지요구 행동 및 증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를 측정하는 척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1(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이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높은 사람일수록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2(부정정서 감소기대는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이는 증간소음으로 인해 경험한 분노와 불안의 부정정서를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3(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이는 자신이 증간소음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중지요구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증간소음을 유발한 당사자가 자신을 만만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매개모형 검증결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부정정서 감소기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4(부정정서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이런 결과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증간소음에 대한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이 증간소음에 피해를 받아 고통스럽고 불쾌한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부정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증간소음 중지요구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매개모형 검증결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부정평가 감소기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부정평가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가 지지되지 않았다. 부정평가 감소기대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부정평가 감소기대와 부정정서 감소기대 사이의 상관, $r = .68$, $p < .01$, 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평가 감소기대와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정정서 감소기대가 포함된 회귀분석에서는 부정평가 감소기대에 예측하는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는 증간소음을 중재하는 기관 담당자나 정책 입안자에게 시사하는 실제적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증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가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이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사람을 중재할 때 그 사람이 경험한 부정정서에 대해서 공감하고 타당화(validation: 그 사람이 경험하는 부정정서와 고통에 대해서 그럴만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상담기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중 층간소음 감소기대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갖지 못하였다. 또한 부정적 상호성 믿음도 층간소음 감소기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은 층간소음에 대한 개입을 할 때 물리적인 소음의 감소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동시에 소음저감정책에 집중되고 있는 현 층간소음 정책의 문제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음 정도를 측정하여 변인에 포함하지 못하고, 소음 피해자가 보고하는 주관적 정도만을 반영하였다. 실제 공동주택마다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이 느끼는 감각에 따라서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소음의 정도를 포함시켜 개인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와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확률적 표집이 아닌 임의 표집 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선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지역의 거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여성 62.1%, 남성 37.9%로 성별 차이가 약 2배 정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성별을 통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 비율을 비슷하게 하여 성별 차이도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성격과 사고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개입방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장민지 (2019). 감각처리 민감성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재홍 (1997). 우리는 늘 받은 만큼 되갚는가: 갈등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53-75.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2021). 연도별 통계. URL: <http://www.noiseinfo.or.kr>. (2022.07.15.)
- 권석만 (2017). 인간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혁남 (2010). 분노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 인간연구, 19, 77-105.
- 김범주 (2012). 대인 갈등유형과 갈등해결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은 (2012).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특징.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식 (2008). 상호성 원칙 연구. 르네 지라르를 통한 경제논리 비판 5. 한국프랑스학논집, 2008(5),

- 179-194.
- 김혜리 (2017). 감각처리 민감성, 충간소음에 대한 책임 귀인 및 소음중지요구 수용여상이 충간소음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명길 (2003). 共同住宅의 層間騒音 遮斷性能 向上에 關한 研究.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영화 (2004). 부부의 자존감과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외자 (2010).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적학습, 학업효능감, 결과기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미숙 (2017). 대학생의 결과기대, 지각된 행동통제력 및 낙관적 편향과 채소·과일 섭취행동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위채은 (2019).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충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 충간소음에 대한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윤구, 연제훈, 김지현, 육승희, 박미진, 윤기상 (2013). 충간소음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인식.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7-258.
- 전진용 (2004).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환경 개선 방향.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진동, 14(5), 24-30.
- 천주명 (2015).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반응적 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타인 행동에 대한 귀인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clay, L. J., Whiteside, D. B & Aquino, K. (2013). To avenge or not to avenge? Exploring the interactive effects of moral identity and the negative reciprocity norm.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1(1), 15-28.
- Beyens, U., Yu, H., Han, T., Zhang, L., & Zhou, X. (2015). The strength of a remorseful heart: Psychological and neural basis of how apology emolliates reactive aggression and promotes forgiveness. *Frontiers in Psychology*, 6, 1-16.
- Card, N. A., & Little, T. D. (2006).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sis of differential relations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30(5), 466-480.
- Eisenberger, R., Lynch, P., Aselage, J., & Rohdieck, S. (2004). Who takes the most revenge? Individual differences in negative reciprocity norm endors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6), 787-799.
- Felstiner, L. W., Abel, R. L., and Sarat, A. (1980). The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of disputes: Naming, blaming, claiming... *Law and Society Review* 13(3), 631-654.
- Hubbard, J. A., Morrow, M. R., Romano, L. J., & McAuliffe, M. D. (2010). The role of anger in children's reactive versus proactive aggression: Review of findings, issues of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In W. F. Arsenio & E. A. Lemerise (Eds.), *Emotions, aggression, and morality in children: Bridg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pp. 201-21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empes, M., Matthys, W., De Vries, H. & Van Engeland, H. (2005).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 a review of theory, findings and the relevance fo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4(1), 11-19.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31), 79-122.

- May, L. N., Byrd, D. A., Brown, K., Beckman, T., & Sizemore, J. (2007).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hurt reactivity, socia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y Journal*, 4(2), 50-57.
- Parks, J. M. (1996). The fourth arm of justice: The art and science of revenge. *Research on Negotiation in Organizations*, 6, 113-144.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Rotter, J. B. (1971).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personal trust. *American Psychologist*, 26(5), 443-452.
- Rotter, J. B. (1990).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 case history of a variable. *American Psychologist*, 45(4), 489-493.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09-532.
- Vitaro, F., & Brendgen, M. (2005).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원고접수일: 2022년 4월 8일

논문심사일: 2022년 4월 22일

게재결정일: 2022년 5월 3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2. Vol. 27, No. 4, 609 - 625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and Floor Noise Complaints: The Mediating Impact of 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

Kwon Young Hee Lim Young Jin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impact of 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 between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and floor noise complains. The author administered the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Scale, the Floor Noise Complaints Scale, and the 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 Scale to 195 adults living in apartments and multi-unit housing. Results are as follow. First,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loor noise complaints. Second, negative emotion decrease expectan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loor noise complaints. Third, negative evaluation decrease expectan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loor noise complaints. Fourth, negative emotion decrease expectanc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and floor noise complaints. Fifth, negative evaluation decrease expectancy,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and floor noise complain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floor noise complaints,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